

언어 영역

- | | | | | |
|-------|-------|-------|-------|-------|
| 1. ⑤ | 2. ③ | 3. ④ | 4. ④ | 5. ② |
| 6. ④ | 7. ⑤ | 8. ② | 9. ④ | 10. ④ |
| 11. ④ | 12. ④ | 13. ① | 14. ④ | 15. ④ |
| 16. ⑤ | 17. ③ | 18. ④ | 19. ② | 20. ④ |
| 21. ⑤ | 22. ⑤ | 23. ① | 24. ⑤ | 25. ② |
| 26. ④ | 27. ⑤ | 28. ③ | 29. ⑤ | 30. ④ |
| 31. ② | 32. ⑤ | 33. ① | 34. ③ | 35. ② |
| 36. ③ | 37. ② | 38. ④ | 39. ⑤ | 40. ④ |
| 41. ② | 42. ⑤ | 43. ④ | 44. ⑤ | 45. ④ |
| 46. ⑤ | 47. ⑤ | 48. ③ | 49. ① | 50. ③ |

〈듣기 대본〉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원전 638년 중국의 송나라 양공은 홍수 근처의 탁곡에서 강대한 초나라 정예군을 맞아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나라 군사가 먼저 도착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때 초나라 군사는 이제 막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우사마인 자어가 급히 양공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양군의 형세를 비교해 보면 적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적의 전열이 정비되지 못한 틈을 타 허를 찔러 공격하면 틀림없이 초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양공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오? 유가에서는 ‘인의’를 강조했소. 군자는 부상당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며, 남의 곤경을 틈타 위협에 밀어 넣지 않는다고 했소. 아직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 초나라 군사를 공격하는 것은 인의를 어기는 짓이오.”

배를 타고 상륙한 초나라 군사들이 기를 흔들며 진을 벌이고 환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자 우사마는 백성과 나라를 생각해 빨리 공격할 것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자 양공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습니다. “대열로 돌아가시오. 한 번만 더 그런 말을 하면 군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초나라 군사는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서야 양공은 비로소 북을 울려 출격 명령을 내렸지만 강성한 초나라 대군에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2.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이번에 우리 집에서 도배를 다시 하는데 내 방은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해 주시겠대. 난 무슨 색으로 할지 고민이야.

여학생 : 그러면 초록색으로 하면 어때? 초록색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남학생 : 그래? 파란색이나 빨간색 어때?

여학생 : 정신적으로 복잡할 때 파란색을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 그리고 빨간색은 힘을 솟게 만드는 효과가 있대.

남학생 : 우와! 너 대단하구나. 그럼 주황색은?

여학생 : 주황색은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대.

남학생 : 그렇구나. 그럼 난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고마워.

3. 이번에는 조선 시대의 가옥에 대한 강의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시대 양반의 가옥은 대문에 붙어 있던 행랑채, 남자들이 주로 생활했던 사랑채, 그리고 그 안쪽으로 여자들이 생활하던 안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랑채가 주로 하인들이 거처하던 공간임을 고려할 때, 조선 시대 양반 가옥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 양반의 가옥에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특징이 발견됩니다. 먼저, 여자가 생활하는 공간인 안채와 남자가 생활하는 공간인 사랑채를 비교했을 때, 안채가 사랑채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중문’이라고 하는 조그만 문이 있는데, 이 중문의 자물쇠가 사랑채 쪽이 아닌 안채 쪽에 달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안채 쪽에서 자물쇠를 풀어주지 않으면 사랑채에서 생활하는 남자가 안채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옥 전체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비율의 차이와 중문에 달려 있는 자물쇠의 위치는 양반 가족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5】 이번에는 라디오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이번 시간에는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 성형한 사람이 참가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형한 사람이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 참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김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 선생님(남자) : 미인 대회가 외모를 기준으로 미인을 뽑는 것인 만큼 성형 여부까지 따지고 들면 복잡해지고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스코리아 대회는 예전처럼 한국의 대표 미녀를 뽑는다는 개념보다는 또 하나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선발 대회

로서의 성격이 짙어졌습니다. 실제 미스코리아 출신의 대다수가 연예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성형은 받아들여지면서 유독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참가자의 성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참가자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참가자의 성형에 반대하는 박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여자) : 다른 미인 대회와는 달리 최소한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는 한국적이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선발되어야 합니다. 성형 미인이 우승하는 것은 약물을 복용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료 목적인 성형 수술을 연예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의 몸에 인위적인 수술을 가하여 미스코리아가 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자 : 성형한 미인이 미스코리아에 뽑히는 것은 규칙을 어기고 상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김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 선생님 : 지금까지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이 모두 자연 미인 상태로 출전한 것도 아닌데 최근의 몇몇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성형 수술이 치료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연예계로 진입하는 통과 의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성형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굳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성형을 금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자 : 성형이 일반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성형을 허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박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 선생님 : 아무리 성형이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성형 미인이 미스코리아에 뽑히는 것은 성형을 하지 않은 참가자들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일반 연예인 오디션과는 달리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미인을 뽑자는 취지의 미인 대회에는 성형 미인을 배제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해설〉

1. 송나라 양공은 유가의 가르침 ‘인의’라는 말의 참뜻을 잘못 이해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전쟁은 적과 싸우는 일이니 전쟁에 패하고 목숨을 잃는 것도 당연하다. 유가는 ‘인의’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적전에서 적과 대치할 때 적군에게 인의를 행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인의’란 정치적으로 민심을 얻어야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싸우면 이긴다는 뜻이지 양공이 행한 것과 같은 ‘어리숙한 전략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양공은 상황에 맞지 않게 유가의 가르침을 적용하려 하다가 싸움에서 패한 것이다.



명지인은
CNN에서
학점 받는다!

- 수시2차 원서접수 : 2012.11.12(월) ~ 11.16(금)
- 정시“나”군,“다”군 원서접수 : 2012.12.22(토) ~ 27(목)
- 입학상담 : 02)300-1799, 1800, <http://ipsi.mju.ac.kr>

www.mju.ac.kr

CNN, Microsoft, UN, 국제무역위원회, 대사관 등
50개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merican University에서 받은 학점까지 그대로 인정받는
명지대학교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이제 명지대학교와 함께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명지대학교가 당신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드리겠습니다.

VISION 2015 사랑과 창조의 글로벌 리더
 명지대학교

2. 초록색은 마음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빨간색은 힘을 솟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파란색은 집중력을 강하게, 그리고 주황색은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색깔은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안채가 사랑채보다 큰 가옥의 특징을 들어 여성의 지위가 우리의 예상보다 높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중문이 안채 쪽에 달려 있어 출입 통제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들어 집안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집안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높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 강의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시대 양반 계층의 가옥 구조와 여성의 위상'이다.

4. 박 선생님은 첫 번째 발언에서 '치료 목적인 성형 수술을 연예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김 선생님도 '성형 수술이 치료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연예계로 진입하는 통과 의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토론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③이다.

5. 사회자는 각 토론자가 발언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상대 토론자에게 발언하도록 하면서 진행시키고 있다.

6.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연 날리는 사람이 연줄을 잡고 달리는 방법도 효과적이다.'라는 <보기>의 내용은 연을 날리기에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 날리는 사람이 연줄을 잡고 달리는 방법은 열악한 여건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교육을 해 나가기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보기>로부터 이끌어 낸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의 '연을 하늘로 띄워 올리려면 적당한 바람이 불 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② <보기>의 '연에 연줄을 댈 때에는 연줄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③ <보기>의 '연을 잘 날리려면 먼저 연들의 종류와 각각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특성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⑤ <보기>의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 연줄을 잘 조절해야 한다. 연줄이 지나치게 팽팽해졌을 때에는 억지로 연줄을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7. 이 개요는 귀농을 한 사람들이 귀농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 있다. 귀농자들은 개인적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농에 실패하기도 하고, 귀농 교육이나 자금과 관련된 어려움 때문에 귀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성공적 귀농을 위한 개인적 준비 및 정책적 지원 강화'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8. ㉠-1에서는 수돗물을 선호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막연한 불안감'과 '맛·냄새가 이상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질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막대한 수돗물 외 식수 추가 지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수돗물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돗물 정수처리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안한 것은 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① ㉠-2에서 먹는 물 선호 분포가 수돗물이 29.5%인 것에 반해 정수기 물은 50%나 됨을 확인할 수 있다. ㉠-1에서 수돗물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막연한 불안감이 48.2%나 된다고 하였으므로 수돗물 대신 정수기 물을 선호하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③ ㉠-1에서 수돗물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맛·냄새가 이상한 것이 36.2%나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에서는 맛·냄새 등 수질을 향상시킨 저렴한 병입 수돗물을 음용할 의사가 61%나 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에서는 수돗물 외 식수 관련 추가 지출이 한해 약 2조 3,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2에서 수돗물 외에 정수기 물이나 먹는 샘물을 선호하는 비율이 68%나 된다고 하였으므로 국민들의 식수 관련 추가 지출이 큰 것은 정수기 물이나 먹는 샘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에서 수질을 개선한 병입 수돗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먹는 샘물 대신에 이를 이용하게 될 사람들이 늘어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수돗물 외 식수 관련 추가 지출에 대해 언급하였으므로 수질을 개선한 병입 수돗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먹는 샘물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9. ㉡은 졸업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뒷문장과 위치를 바꾸면 문맥상 자연스럽게 읽힌다.

① '추출(抽出)'은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의 의미이다. '배출(輩出)'은 '인재(人材)가 계속하여 나옴'의 의미이므로 ㉡에 적절한 단어이다.

⑤ ㉡은 앞의 '~ 전달한다면'과 호응을 이루어야 하므로, '~ㄴ 것이다'의 서술어가 와야 한다.

10. '감동과 참여의 졸업식을 만들자'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므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감동적인 졸업식이 되도록 준비하자는 것은 글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또한 '준비합시다'라고 하여 청유형 표현을 활용했고, '졸업 후에 졸업생들이 나아갈 길은 그동안 걸어온 길에 존 재합니다'에서 역설법을 활용하고 있다.

① 청유형 표현만 활용하고 있다.

② 글의 취지만 반영되고 있다.

③ 역설법만 활용하고 있다.

⑤ 글의 취지에 맞는 내용이고 역설법을 활용하고 있다.

11. '그렇게 강물이 깊었다'는 지난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깊던'이 옳다.

12.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은 자식 많이 둔 부모는 항상 자식을 위한 근심이 그치지 않아 편할 날이 없다는 말로 ④의 상황에 쓸 수 없는 속담이다. ④의 상황에 쓸 수 있는 속담은 '남의 눈에 눈물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이다.

【13~16】(현대시) ㉠ 백석, '바다' ㉡ 객재구, '계단-연화리 시편 5' ㉢ 도종환, '가을비'

13. ㉠~㉢ 모두 대상의 부재가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은 바닷가에 와서 헤어진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는 강변에서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는 가을비가 내리는 날에 지금은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

14. [C]에서는 신이 화자에게 찾아와 가장 귀중한 물건을 보여 주는 순간에도 '당신'이 오는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당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당신' 없는 외로움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아니다.

15. ㉠은 '당신'과 헤어진 상황에서 찾은 곳으로, 이곳에서 화자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즉 화자가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다. 그리고 ㉡은 과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자리이지만 현재는 혼자 있는 공간으로 과거와 다른 현재를 인식하는 공간이다.

16. ㉢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반어적 표현이란 표현된 것과 표현의 의도가 상반된 진술 방식으로 ㉢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① '어제 우리가 함께 사랑하던'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다.

② '~겠지요', '~습니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숲'이라는 동일한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④ '가을비', '낙엽' 등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7~19】(예술) 이주영, '추상 미술과 재현의 해체'

17. 이 글은 추상 미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추상 미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상 미술이 대중화 되었다는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철학 사조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① 첫째 문단에서 19세기까지의 미술은 재현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지만, 추상 미술이 등장하면서 그러한 재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②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20세기에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낯설어지고 인간의 정신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추상 미술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18. <보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미술이 의미를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칸딘스키는 미술이 외부 세계를 재현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으나, 미술이 재현을 거부하여 의미까지 배제하면 장식적인 것에 머무르게 될

것이므로 내적 필연성(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칸딘스키는 재현을 거부하고 선, 형태, 색채 등으로만 화면을 구성하였지만, 그런 미술 안에 대상이 지닌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19. 원시인들이 느낀 공간 공포의 결과 원시 예술의 추상적 양식이 나타났고 20세기에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다시 낮설어져서 추상이 부활했다고 했으므로, 미술에서 추상에 대한 지향은 거듭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ㄱ). 보링어에 의하면 감정 이입 충동이 인간과 외부 세계 현상들의 행복한 신뢰의 관계라면, 추상 충동은 외부 세계의 현상이 인간 내면에 초래한 내적 불안의 산물이다. 따라서 보링어는 감정 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의 전제를 대조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ㄷ).

【20~23】(현대 소설)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20.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상훈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자 우두망찰(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하며 어디로 도망갔다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상훈이 돌아와 반가워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상훈은 ‘덕택에 나는 이번 방학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계획한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나’가 상훈이 준 돈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치고 내쫓는 것은 그가 가난한 ‘나’의 삶을 돈을 통해 모욕하고 있기 때문이지, 혹시 돈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갈까 경계하는 것은 아니다.

③ ‘나’는 아직 상훈이 부자집 도련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가 입은 좋은 옷과 대학생임을 암시하는 배지 등이 그의 것이 아니라 훔친 것이며, 상훈이 그렇게까지 한 것은 돈 때문에 상훈을 괴롭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④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에서 ‘나’의 반감을 읽을 수 있다.

22. [A]는 상훈을 쫓아내고 나서 상훈이 ‘나’의 가난을 흠쳐갔음을 깨닫고 분노하고 있는 부분으로, 상훈을 쫓아보낸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한 ‘나’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① ‘그런데 내 방은 잠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나’의 방을 어제와는 달리 무의미하고 추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내 가난을,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서 예전의 삶을 회복할 수 없으리라는 ‘나’의 절망감을 읽을 수 있다.

23. <보기>의 설명에 의하면,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진 이 소설에서 ‘나’ 이외의 타인인 상훈에 대해 서술할 때 상훈의 외면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상훈의 심리를 정확히 드러낼 수 없다. ㉔에서 상훈의 얼굴이 냉랭하고 남남스럽다고 서술되었지만 정작 그의 내면 심리가 어떠

한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㉔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계를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4~27】(기술) 장원석, ‘뇌파와 뇌-기계 인터페이스’

24.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 비침습적 방식이 ‘전달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많으며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침습적 방식이 비침습적 방식과 달리 뇌파의 신호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25. 둘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B]는 인간의 뇌에서 발생한 신호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뇌의 활동을 자극하는 과정은 아니다.

26. 첫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속파는 α 파에 비해 진폭이 낮으며 진동수는 많다’고 했으므로 <보기>에 비해 상하 진폭이 낮고 좌우 진동수가 많은 것은 ④이다.

27. ㉔의 ‘나눔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구분’이다.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 나눔’의 뜻을 지니고 있다.

① ‘구성’은 몇 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일

② ‘구비’는 빠진 것 없이 모두 갖추

③ ‘구획’은 경계를 갈라 정함. 또는 그 구역

④ ‘구현’은 구체적으로 나타냄

【28~31】(인문) 조성오, ‘손오공과 조요경 - 현상과 본질’

28. ㉔에서는 ‘현상’과 ‘본질’이라는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밝히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㉔에서는 인생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을 예로 들어가면서 ‘현상’과 ‘본질’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㉔에서는 본질은 명백한 침략인데 현상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를 통해 현상이 본질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㉔에 제시된 예는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잘 드러난 구체적 예에 해당하므로 ㉔에서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㉔에서는 ‘현상’과 ‘본질’의 속성을 중심으로 본질은 현상을 통해 표현되고, 현상 속에는 본질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㉔에서는 ㉔~㉔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사물의 본질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29. <보기>에서 손오공은 ‘자신을 묘당으로 변화시켰지만 꼬리를 감출 수가 없어 꼬리를 깃대로 변화시켜 묘당 위에 세웠고, ‘진짜 묘당은 깃대를 세우지 않는 법’이어서 ‘이 묘당은 진짜 묘당과는 달랐다’고 설명하고 있다. 꼬리를 감출 수 없었던 손오공이 꼬리를 깃대로 변화시킨 것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킨 묘당이 진짜 묘당과는 달랐다는 사실은 ㉔의 ‘현상은 본질의 표현이기 때문에 현상이 아무리 다양한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현상 속에는 본질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㉔의 ‘그렇다고 해서 본질과 현상이

상호 간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도 ‘현상과 본질이 별개의 것일 수 있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㉔는 적절한 반응으로 볼 수 없다.

30. ㉔의 바로 앞에 제시되어 있는 “현상은 본질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본질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현상만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에서 ㉔과 같은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현상이 본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내릴 경우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고 사물의 본질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글쓴이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㉔과 같은 주장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31. ‘공고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단단하고 튼튼하다’이다. ‘실속이 없이 헛되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 ‘공허하다’이다.

【32~36】(갈래 복합) ㉔ 이식, ‘들국화’ ㉔ 권섭, ‘심육영(十六詠)’ ㉔ 이인로, ‘대나무’

32. ㉔는 들국화를 제시하며 ‘무심의 경지’와 ‘향기’ 등을 근거로 삼아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㉔는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를 대상으로 삼아 각각 ‘독야청청’, ‘만절한향’, ‘암향’, ‘사시에 한 빛’이라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㉔ 역시 대나무에서 도출되는 가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② ㉔에는 ‘바람 서리’와 같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대상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㉔의 각 수에서는 ‘풍상’, ‘추풍’, ‘찬 기운’, ‘설상 풍우’와 같은 시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시어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사회의 부조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는 어렵다.

33. ㉔는 들국화를, [A]는 황화(국화)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㉔에는 ‘무심의 경지’, ‘향기’를 드러내는 ‘너와 같은 모습’은 보기 어려워, 명품이라 할 만하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으며, [A]에는 ‘만절한향’을 드러낸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는 모두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로 볼 수 있으며, 후각적 심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㉔에서는 ‘~ 어떠한고’에서, [A]에서는 ‘~어 이하여 피었는가’와 같은 의문형 진술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㉔는 ‘난초방초’와의 대비를 통해, [A]는 ‘초목’과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34. ㉔에서 ‘다른 이’는 대나무의 특성으로 “바다가 얼도록 추위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쇠가 녹도록 더위도 마르지 않습니다. 새파랗고 싱싱하여 사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때와 장소에 따라 그 뜻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대나무의 지조를 드러내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때와 장소와 맞게 조화를 이루어 낸다’는 것은 ‘다른 이’의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35. ㄹ의 각 수는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를 형상화 대상으로 삼아 각각 ‘독야청청’, ‘만절한향’, ‘암향’, ‘사시에 한 빛’이라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각 수에서 다양한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못하다.

③, ⑤ ㄹ의 각 수는 시적 대상에게 가해지는 시련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제1수는 ‘풍상’을, 제2수는 ‘추풍’을, 제3수는 ‘찬 기운’을, 제4수는 ‘설상 풍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계절감을 내포하고 있는 시어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외적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 수의 (소)나무, 국화, 매화, 대는 긍정적인 자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6. 나무가 베이지 않고 지속적인 생장이 보장된다면, 앞으로 동량재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나무에 대한 보호와 보장이라는 외적인 조건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7~39】(언어) 나찬연, ‘현대 국어 문법의 이해-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의 차이’

37. 이 글은 우리말의 접사를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로 나누고, 각각의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 기준에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예를 들어 핵심을 구체화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8. 파생 접사는 어근의 개념적인 뜻은 바뀌 주고, 굴절 접사는 문법적인 기능만 한다.

- ① 첫째 문단에서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는 모두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있다.
- ② 이 글에서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가 모두 어근에 붙어서 기능한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
- ③ 넷째 문단에서 파생 접사는 굴절 접사에 비해 분포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밝혀져 있어, 파생 접사가 상대적으로 어근과의 결합이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⑤ 둘째 문단에서 파생 접사는 어근이 가진 개념적인 뜻을 바꾸어 준다고 밝히고 있다.

39. <보기>에서 어근 없이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 경우는 없다.

- ① ‘군말’에서 ‘군-’은 파생 접사이다.
- ② ‘지우다’는 어근 ‘지우-’에 접사 ‘-개’가 붙어 원래의 어근과는 다른 개념을 가진다.
- ③ ‘밝기’는 어근 ‘밝-’에 접사 ‘-기’가 붙어 명사로 파생되었다.
- ④ ‘짓밟히다’에는 어근 ‘밟-’에 파생 접사 ‘짓-’과 ‘-히-’가 결합되어 있다.

【40~43】(고전 소설) 조위한, ‘최척전’

40. “오랑캐 노인 한 사람이 수시로 와서 감시했는데, 최척 부자의 말을 알아듣는 듯 불쌍히 여기는 빛이 있었다.”라는 내용과 “이튿날 식량을 주면서, 자기 아들더러 셋길을 일러 주게 하여 최척 부자를 달아나게 했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노인은 최척과 몽석이 탈출하려 한다고 의심하여 두 사람을 불러서 심문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연에 대해 들어보고 두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41. “조선의 원수 강홍립은 옷을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려 했으나, 종사관 이민환은 누르하치의 뜻을 거슬렀다가 훗날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그 옷을 빼앗고 명나라 병사들을 붙잡아 적진으로 보냈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종사관 이민환이 명나라 병사들을 붙잡아 적진으로 보낸 것은 누르하치를 두려워하여 한 행동이므로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려는 의도와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2. [A]의 “여기서 요양까지는 수만 리 거리라 살아서 돌아오기 쉽지 않을 테니 어찌 훗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있겠어요?”에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 있다. [B]의 “그까짓 오랑캐 무리가 감히 대국의 상대가 될 수 있겠소? 이제 황제의 군대가 출정하니 파죽지세로 깨뜨려 버릴 수 있을 거요.”에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나타나 있다.

- ① [A]에는 과거의 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만 행복했던 추억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도 아니다.
- ② [B]에는 상대방이 앞으로 얻게 될 이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오히려 [A]의 “보잘것없는 제 한 목숨, 서방님과 헤어지는 마당에 자결하여 한편으로는 저에게 연연하는 서방님의 마음을 끊고, 한편으로는 밤낮으로 느낄 제 고통을 없애 버리고자 합니다.”에 상대방이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다.
- ③ [A]에서는 ‘끊어진 거문고 줄이 다시 이어지고 반쪽으로 나뉘었던 거울이 다시 합해진 것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현재의 처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B]에서는 현재의 처지에 대한 설명을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파죽지세’를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처지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대해 말하기 위한 것이다.
- ④ [A]와 [B] 모두 의인화된 자연물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 ㉠의 경우 앞에 제시된 ‘재앙을 겪었으나’와 뒤에 제시된 ‘구사일생 목숨을 건지고’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인 ‘천신만고(千辛萬苦)’이다. ㉡의 경우 ‘몽석은 최척의 말을 들으면서 안색이 바뀌고 속으로 놀라며’라는 내용과 죽었다고 하는 아들의 나이와 신체상의 특징에 대한 최척의 말을 듣고 자신이 바로 그 아들임을 밝히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에는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척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과 관련된 한자 성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적절한 것은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을 뜻하는 ‘반신반의(半信半疑)’이다.

- ① ‘누란지위(累卵之危)’는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부화뇌동(附和雷同)’은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다.
- ②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전전반측(輾轉反側)’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 ③ ‘조변석개(朝變夕改)’는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이다. ‘노심초사(勞心焦思)’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뜻하는 말이다.
- ⑤ ‘천우신조(天佑神助)’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을 뜻하는 말이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은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몸을 사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44~46】(사회) 홍은주, ‘경로 의존성’

44. 쿼터 타자기 자판은 일부러 손이 가기 어렵게 만든 형태의 자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판의 비효율성을 해결하였다는 것은 옳지 않다.

45. 이 글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특정한 현상에 대한 글이다. 경로 의존성의 개념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경로 의존성의 특징과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46. 빗금 친 동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드는 만큼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아직도 빗금 친 동전을 발행하는 나라가 많은 것은 해당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 의존의 탓에 갇혔기 때문이다.

【47~50】(과학) 홍성목, ‘물질의 결합’

47. 이 글은 물질의 결합시 일어나는 에너지의 증감, 그리고 질량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물질의 변화 과정과 관련된 과학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48. 질량 결손시 에너지의 증감 현상을 원자의 결합에 의한 분자 형성 과정을 에너지 증감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하여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2.9eV의 에너지의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에너지가 방출된 것으로 이 글에 따르면 에너지가 방출될 경우 그에 상반하여 질량은 감소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물분자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각각의 질량 합보다 작을 것이다.

- ① 물 분자의 결합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현상은 발열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④ 이 글에서 수소 원자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13.6eV의 질량 결손은 수소 원자의 질량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값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보다 더 적은 2.9eV의 질량 결손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9. 이 글에서는 ‘질량 결손’을 구성 단위의 결합이나 기존 물질의 분해에 의해 질량의 합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질량이 감소할 경우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두 정보를 결합하면, 손실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도출해 낼 수 있다.

50. ‘되다’는 동사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은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①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의 의미
- ② ‘일이 잘 이루어지다.’의 의미
- ④ ‘작물 따위가 잘 자라다.’의 의미
- ⑤ ‘어떤 대상의 수량, 요금 따위가 얼마이다.’의 의미